

이창민 '옛 전우' 주민규 막고 승리 견인할까

제주SK 15일 대전과 K리그1 5라운드 홈 경기 브라질 듀오 에반드로·데닐손 공격력도 주목

'전설' 이창민과 브라질 특급 용병 에반드로·데닐손이 가세한 제주 SK FC가 주민규의 합류와 함께 날개를 단 대전을 상대로 부진 탈출에 나선다.

제주SK는 15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격돌한다.

제주는 개막전 승리 후 최근 3경기에서 공격이 침묵하며 1무2패로 부진, 승점 4로 리그 8위에 처져있다.

병역의무를 마친 이창민과 브라질 용병 에반드로와 데닐손이 홈경기에서 첫 선을 보이며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K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손꼽히는 이창민은 지난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마치고 팀

훈련에 공식적으로 합류해 남태희와 함께 중원 지배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 최근 영입을 발표한 브라질 듀오 데닐손과 에반드로가 부진한 우리 조나탄을 대신해 파괴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골 감각을 과시한 이견희와 김준하, 유인수도 재정비를 마치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제주에게 1승3패로 열세를 보였던 대전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제주를 떠난 후 울산에서 다시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고 대전으로 옮긴 주민규가 4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는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임채민과 송주



데닐손과 이창민, 에반드로 (왼쪽부터). 제주SK FC 제공

훈 이탈리아의 수비라인이 주민규에게 전달되는 패스를 차단하는데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김학범 감독은 "이창민의 복귀로 전력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

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정말 기대감이 크다"며 "데닐손과 에반드로 역시 좋은 기량을 가진 만큼 기존 이탈리아와 유리하고 함께 환상의 브라질 커넥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태권도 유망주 오승우, 유소년 국대 선발

국대 선발전 -61kg 은메달... 아시아유소년선수권 출전 '쌍둥이 형' 오승철 -65kg 3위, 동여중 고하은 동메달

쌍둥이 유도 형제이자 제주 태권도 유망주인 오승우(오현중2)가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오승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푸자이라 세계태권도대회 및 제6회 아시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 61kg급에 출전한 오승우는 결승에서 임서울(인천 구월중)에게 라운드스코어 2대1로 분패했지만 제주 최초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오는 7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앞서 오승우는 16강에서 윤희성(계산중)을 2대0, 8강전에 한지울(강화중)을 2대1, 준결승에선 전은율(성정중)을 2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오승우의 쌍둥이 형 오승철은 -65kg급 8강에서 임재현(고덕중)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지만 전지오(인천 계산중)에게 0대2로 패해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이밖에 여중부 -59kg급 고하은(제주동여중2)도 16강에서 권혜영(홍해중)을 2대0, 8강에서 서다원(경각중)을 2대1로 꺾고 4강전에 진출했지만 김지우(서원중)에게 0대2로 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5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출전권을, 각 체급별 2위에게 7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출전권이 주어졌다. 위영석기자



고하은(왼쪽), 오승우(세 번째), 오승철(네 번째).



고지우가 13일 태국 푸켓 블루캐니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티샷을치고 있다. KLPGA 제공

'버디 폭격기' 고지우 첫날 버디 9개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를 많이 잡아낸다고 해서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은 고지우가 시즌 개막전 첫날부터 버디를 쏟아냈다.

고지우는 13일 태국 푸켓의 블루캐니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0만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뽑아냈다.

보기 2개를 결투여 7언더파 65타를 친 고지우는 클럽 하우스 리더에 올랐다.

클럽 하우스 리더는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1위로 먼저 경기를 끝낸 것을 말한다.

고지우는 신인이던 지난 2022년

버디 336개를 잡아내 유해란과 함께 버디 1위에 오른 덕분에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출전 경기 수가 유해란보다 1개 더 적었던 고지우는 라운드당 버디 개수에서도 윤이나(3.91개)에 이어 2위(3.77개)였다.

2023년과 작년에도 고지우는 신인 때보다는 줄었지만 버디를 많이 잡아낸 선수였다.

2023년에는 266개, 작년에는 303개의 버디를 수확했다.

2023년 맥클·모나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뒤 지난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고지우는 생애 세 번째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KLPGA 투어에서 232번 대회에 출전하고도 아직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한 최민경과 4년 차 송은아가 5언더파 67타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렛츠런파크 가족공원 어린이 승마체험 운영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렛츠런파크 제주 가족공원에서 어린이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승마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7만2982명이 참여한 렛츠런파크 제주 대표 체험프로그램이다.

승마체험장은 포니승마장(3세~5세)과 어린이승마장(6세~16세)으

로 나눠 운영되며 연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4회 운영되며 1일 1회 무료로 체험 가능하다.

렛츠런파크 제주는 서늘랜드포니, 제주마 등 다양한 말을 볼 수 있는 관상마체험장을 개장하고 4월부터는 말 먹이주기(1000원) 체험도 운영한다. 위영석기자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경 양면배 대표님의 이학박사(외식조리관리학)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축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마음을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면배 조리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색다른 맛으로 보답 하였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1:3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4인이상) : 1인 79,000
A(2인이상) : 1인 59,000
B(2인이상) : 1인 49,000
C(2인이상) : 1인 39,000

주중 점심특선(2인이상) 1인 28,000 (도민할인가 → 25,000원)
* 본 사진은 특A코스입니다.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

1층 만배성 밥집 예약취폐 안내

돌잔치 결혼피로연 친목단체 동호회 등 각종연회 세미나를 위한 **입장취폐 및 출장취폐** 예약 받습니다.

메뉴별 가격대(부가세 별도)
₩ 25,000 ₩ 35,000 ₩ 50,000 ₩ 70,000

메뉴 및 가격은 상담후 조정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064)712-6800

만배성 박스 케이터링 안내

박스 케이터링 A: 1인 35,000
박스 케이터링 B: 1인 50,000
*** 10인 이상 가능합니다.